

이스라엘-UAE·바레인 국교 정상화 협정

72년만에 걸프 아랍국가 수교 트럼프 “5~6개국과 추가 협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강력 반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한 바레인의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외무장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셰이크 압둘라 빈 자예드 알나흐얀 외무장관이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걸프 지역 아랍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 및 바레인과의 국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다.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대립관계였던 걸프 지역 아랍국가와 수교에 합의하기는 72년 만에 처음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인 '아브라함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UAE의 셰이크 압둘라 빈 자예드 알나흐얀 외무장관, 바레인의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외무장관이 각각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서명했다.

이스라엘과 UAE, 이스라엘과 바레인은 각각 양자 협정을 맺었고 이들 3개국이 3차 협정도 체결했다. 협정 명칭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따왔다.

4000여년 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브라함은 첫 아들 이스마일과 둘째 아들 이삭을 뒀는데 이스마일은 아랍인의 조상,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각각 여겨진다.

이스라엘이 수교에 합의한 이슬람 아랍 국가는 기존 이집트, 요르단을 포함해 4개국으로 늘었다.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었고 1994년에는 요르단과 평화협정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수십 년간의 분열과 갈등 이후 우리는 새로운 중동의 여명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집무실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하면서 5~6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추가적인 평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5개 또는 6개 국가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추가로 수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슬람 국가로는 오만, 수단, 모로코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슬람 수니파 대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적당한 시기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피스메이커'를 자임하며 이번 협정 성사를 중요한 외교 성과로 부각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을 하나로 묶은 이번 협정은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치적 기반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친 이스라엘'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이날 오전 포크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판매한 무기를 다른 중동 국가에도 팔 의향이 있으며 이는 미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 UAE가 F-35 전투기 구매를 희망한다고 밝힌 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UAE와 이스라엘은 지난달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후 한 달 만인 이달 11일에는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들이 손을 잡으면서 팔레스타인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은 15일 성명을 내고 "평화, 안보, 안정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령정책이 끝날 때까지 지역(중동)에서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UAE 및 바레인의 협정을 비판했다.

워싱턴에서 협정 서명식이 진행될 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로켓탄 2발이 이스라엘 남쪽으로 발사돼 이스라엘인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날 나블루스, 헤브론 등 요르단강 서안 도시와 자치정부에서 이스라엘의 협정 서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WTO, 관세분쟁 중국 손들어줘...미국 반발

최종심 판결 진행 여부 불투명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는 1심 판결로, 미국이 당장 반발하고 나서 상소 시 최종심 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AP, dpa 통신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이날 미국이 2340억 달러(276조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조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동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

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무역법 제301조는 외국이 미국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부과할 때 대통령에게 관세 및 기타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관세가 WTO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며, 보복 조치 전 WTO 판단을 받도록 한 분쟁 조정 규정을 어겼다고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WTO는 지난해 1월 패널을 설치했고 1년 넘게 심리해왔다. AP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제2 테슬라' 니콜라 사기 조사 美법무부 합류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아온 미국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를 둘러싼 사기 논란에 대한 미 증권당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에 미법무부도 합류했다고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 건은 맨해튼의 미 연방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다루고 있다. 이 매체는 SEC는 민사 문제를 다루는 반면 검찰은 형사 사건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SEC는 니콜라 사기 업체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매도 업체(주가 하락 시 이익이 발생하는 투자 방식) 힌덴버그 리서치가 배포한 가운데 이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 조사가 착수했다고 전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힌덴버그 리서치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니콜라를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트레버 밀턴의 수습까지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 업체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양측의 주장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한국 등 6개국과 여객기 운항 재개 허용

베트남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6개국과 여객기 운항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것을 허용해 조만간 한국과 베트남 간 하늘길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16일 베트남 정부 공보 등에 따르면 베트남 총리실은 전날 교통부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과는 15일부터,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는 22일부터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가 끝나는 대로 3월 7일 끊긴 양국 하늘길을 5개월여 만에 다시 이룰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베트남은 인천~하노이, 인천~호찌민 구간에 주 2회씩 여객기를 띄우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예외 입국 대상은 공무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제기구 종사자, 기업 관리자, 숙련 노동자, 투자자, 전문가와 이들의 가족, 유학생 등으로 한정했다. /연합뉴스



챗터미로 변한 미국 오리건주 주택단지

15일(현지시간) 대형 산불 '알메다 파이어'가 휩쓸고 지나간 미국 오리건주 피닉스의 주택단지가 챗터미로 변해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한 달 새 코로나19 확진자 9배 ↑

사망자도 5배 늘어

미얀마에서 코로나19 재확산 한 달 만에 누적 확진자가 9배 정도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일간 미얀마 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보건부는 307명이 추가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3502명으로 늘었다고 전날 밝혔다. 사망자도 35명으로 늘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16일 서부 라카인 주에서 한 달 여만에 지역감염이 발생했다. 이전까지 미얀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65명이었다.

그러나 재확산 이후 한 달 간 누적 확진자 수는 8.6배나 증가했다. 사망자도 6명

에서 5배가량 늘었다. 일일 최대 확진자도 90명(8월 29일)~107명(8월 31일)~166명(9월 6일)~261명(9월 10일)~307명(9월 15일)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감염 재발은 초반에는 서부 라카인 주에서 확산했다. 라카인주는 미얀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힌다. 의료 시설도 열악하다.

여기에 13만명으로 추정되는 무슬림계 로힝야족이 주도인 시트웨 지역 인근의 난민촌에 갇혀있다가 시트웨 생활하는 정치적 특수성도 확산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가구가 집 한 채에 끼여 살 정도로 비좁은 환경에다 이들의 자유까지 제약을 받다 보니 코로나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컸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